

[illegible]



Ⅱ. 허구연 커버스토리 (Cover Story)

표지인물 커버스토리
Cover Story

6월호에선 이번년도 KBO 총재로 부임한 허구연 KBO 총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허구연 총재는 KBO 40년 역사 첫 야구인 총재로 작년까지 MBC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야구 인프라를 포함해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진정한 야구인이다. 그가 생각하는 한국야구의 미래와 계획 중인 활동, 그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들어보자.

인적사항

- ◆ 성명: 허구연
- ◆ 생년월일 :1951.2.25.(71세)
- ◆ 출생: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승산리
- ◆ 대한민국의 야구인. 한국 야구의 대표적 해설위원이자 야구인 출신 최초의 KBO 총재.
- ◆ 소속: MBC(야구해설위원), MBC스포츠플러스(야구해설위원), 한국야구위원회(총재)
- ◆ 학력: 경남고-고려대(법학학사)-고려대(법학석사)-순천향대(명예박사)



경력

- ◆ 2022.3~ 제24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 2018.2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 2013 순천향대학교 언론학 명예박사
- 2011.2~ 2013 아시아야구연맹 기술위원회 위원장
- 2009.6~2017.12 한국야구위원회 야구발전위원장
- 2007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부위원장
- 2005~2006 한국야구위원회 규칙위원회 위원장
- 2005~ MBC스포츠 플러스 야구해설위원
- 2004~2012 대한야구협회 이사
- 2001 프로야구 선수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1990~1991 토론토 블루제이스 마이너리그팀 코치
- 1987~1989 롯데 자이언츠 수석코치
- 1986 청보 핀토스 감독
- 1981 MBC 야구 해설위원
- 1975~1976 한일은행 야구단
- 1970 상업은행 야구단



KBO 40년 역사 첫 ‘야구인’ 총재 허구연 인터뷰

Q. 박정근 원장 질문

A. 허구연 총재 답변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구어체(가능한 인터뷰 한 내용 그대로 작성)로 작성하려고 했음

Q. 총재님 취임 축하합니다. 이전에 KCDC에서 총재님 인터뷰를 3번 했는데 오늘은 1시간 내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사무국장 인터뷰): Coach 2004년 6월호 표지인물. 주로 야구감독 (지도자)으로서의 질문

-두 번째 인터뷰(원장 인터뷰): 2014년 3월 11일~13일 2박 3일 아리조나에서 함께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해설위원으로서의 질문(박정근 교수의 미국스포츠여행 책에 연재)

-세 번째 인터뷰(서포터즈 인터뷰): Coach-Leader 2021년 6월호, 캄보디아 허구연배 이스볼필드 당사자로서의 인터뷰

-네 번째 인터뷰(원장): Coach-Leader 2022년 6월호 표지인물, 5월 24일 KBO 총재로서의 인터뷰

A. 네, 시작하시죠.



왼쪽부터 허구연 박정근 김동환

허구연 총재 인적사항

◆ 생년월일

1951.2.25.(71세)

◆ 출생

경상남도 진양군 지수면 승산리(現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 대한민국의 야구인. 한국 야구의 대표적 해설위원이자 야구인 출신 최초의 KBO 총재.

◆ 소속

MBC(야구해설위원), MBC스포츠 플러스(야구해설위원),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Q. 그동안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대부분 총재직을 맡았는데 야구인(해설위원)이 KBO 총재가 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사실 금년도 시즌에 대한 해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총재직입니다. 지금 구단들이 야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좀 타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저를 좀 선임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야구계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해설위원 준비하고 있을 땐 총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를 선임한 이유를 생각해보니 정치인이 하니까 정치인의 약점이라 그럴까 단점 이런 게 있을 거고, 기업인 하니까 또 기업인의 약점이나 단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를 택한 게 아닌가 보여요. 정치인은 야구계를 깊이 잘 모르는 거고, 기업인이 하면

좋은데 기업인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단 소속의 오너들이 총재를 하면은 대정부 그다음에 국회, 지자체 이런 쪽에 접근해서 뭘 해 내기가 어려워요. 공조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경유착으로 빚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를 총재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Q. 성공적인(훌륭한) KBO 총재(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재라는 자리는 팬과 구단 그리고 선수, 야구인들 모두 코드를 잘해서 야구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산업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정착을 시켜야 해요. 정착이라기 보다 산업 쪽으로 좀 좋게 융성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만성 적자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KBO 총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총재는 이 세 부분의 코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Q. 올 초까지 해설위원의 삶을 보내시다 KBO 총재가 되셨는데 그 이후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많이 달라졌죠. 해설할 때는 계속 자료 준비, 해설 준비를 했는데 단적으로 보면 요즘도 저녁에 게임 하는걸 다 보고 있습니다. 해설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 선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주로 봤는데, 이제는 게임을 보면 심판이 존을 어떻게 잘 보고 있냐 아니냐 그 다음에 전국 구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런 걸 봐야 되니까. 그만큼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 관중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관중이 어느 정도 오느냐 이런 쪽에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되거든요. 해설할 때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지만 이제 총재 자리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왼쪽부터 한명재 허구연

Q.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총재님이 기대하는 야구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A. 저는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고 야구가 좋아서 야구계에 있는 거죠. 근데 실은 지금 한국 야구뿐만 아니고 축구 농구 배구 등의 프로스포츠나 아마스포츠가 녹록지 않잖아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비해서 과연 이 스포츠 선수들 의식수준이 같이 발전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부정적이에요. 또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의 의식 수준들을 좀 끌어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야구만 잘하는 선수는 필요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저도 우스갯 소리로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많이 친 새미소사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마이크 무시나 뭐 이런 투수죠. 스탠포드 대학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20승까지 했잖아요. 우리도 선수들의 발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해요.

Q. KBO 총재 부임 후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허프라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프라 개선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총재로서 역점을 두시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 있다면?

A. 이거는 제가 답을 해줄게요. 지금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겠지만 네 개 구단 도시에 야구장 문제가 걸려 있어요. 부산은 새로운 구장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실도 시장과 얘기해서 돔구장을 새롭게 지어야 되고, 대전구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인천 스타필드에도 이제 SSG가 돔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도와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구단들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왜냐면 정경유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구단들이 접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그 외에도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야구 센터를 한 7월쯤에 공모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남해안 벨트. 우리나라 2군데 정도는 남해안 벨트 쪽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지요? 지역 경제에도 좀 이바지하고. 이런 걸로 틀을 바꿔야 한다. 그걸려면 그 시설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6월 1일날 선거하고 7월 되면 이제 새로운 지자체장이 다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많은 지자체장, 정치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구센터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도지사는 4~5명 그리고 시장 및 군수는 20여명을 만나야 될 거예요. 이러한 하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Q. 한국 야구가 K-POP처럼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하셨던 동남아시아(캄보디아, 베트남) 야구 관련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A. 동남아시아 관련 야구활동은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사실 동남아시아 야구는 아마추어 카테고리지 프로인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도와줄 건 좀 도와주는데 얼마 전에도 라오스 팀 이만수 후배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냥 제 판공비에서 야구공 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또 지원 연락이 올 거거든요. 그럼 또 판공비에서 공을 사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MLB 쪽에서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MLB가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중국 이런 데도 투자를 하는데 우리 한국도 그런 게 필요하다. 프로는 괜찮은데 아마 쪽은 특히 유소년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거기도 좀 생각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Q. 지금 KBO 내에서 MLB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A. 있죠



캄보디아 허구연 베이스볼필드



Q. 프로선수들의 자기관리 문제(음주, 도박 등)를 언론에서 접하면서 KBO나 각 구단에서 선수 관리(심리적인 대처방안)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왼쪽부터 허구연 박정근

A. 이거는 이미 제가 밝혔지만 KBO에서 4불 운동(음주운전, 승부조작, 성범죄, 약물복용 행위)을 하죠. 강정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침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프로 선수들을 프로에 와서 교육 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죠.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은데 아마 이것도 아마추어 영역의 비중이 커요. 초.중.고.대학이나 처음 야구할 때부터 어떤 인성 교육, 품성 교육, 룰을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 있는 것을 프로 와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다 큰 사람, 성인을 교육을 한다는 것이 거의 어려우니까. 우선

은 이런 걸 프로부터 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이제 여건이 되면 아마추어까지 범위를 넓혀 보려고 해요. 예시 중에 하나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개 여러가지 세미나도 하고 교육을 하는 강의로 할 때 선수들이 거의 즐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선수들은 연습해야되니까 몇 박 며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짧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연극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망가지는 모습을 연극으로 보여주자. 그러면 좀 덜 졸고 보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Q. KBO 40년 역사상 첫 야구인 출신 총재이신데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나요?

A. 자부심보다는 이제 책임감이 상당히 큰거죠. 책임감이 크고,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커요. 특히 야구인 총재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도 물론 써야 되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Q. 아까도 직원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연세가 72세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압니다.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요?

A.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운동을 좀 하죠. 자전거 타기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걸 거의 1시간 정도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지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지치는 것은 거의 없는데.... 내가 3년 전에는 신체 나이가 44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사하니까 50세래요. 3년 동안에 신체 나이가 50살이 되었어요. 제가 정치인들이나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데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체력이 국력이라는게 메달 많이 따고 챔피언 많은게 체력이 국력이 아니고 전 국민이 건강해야 된다. 심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 건강해야 된다. 이걸 왜 정부가 모르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인수위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신입 여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체육 활동을 거의 안 했대요. 신입 여학생인데 신체 나이가 50세 정도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력도 손실이고 그 다음에 의료비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는 문제라 생각해요.

Q. 총재님께서 읽어보신 책 중에 KBO팬과 KCDC 매거진 구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

A.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닌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그 책이 있을 겁니다. 타이틀이 아마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말라"일꺼예요. 그걸 저도 읽고 선물 줄 때도 그걸 많이 해줘요.



허구연 발간 책

Q. 10년 후 한국 야구의 미래를 예측해보신다면?

A. 지금 한국 야구 10년 뒤를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야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프로야구가 코로나 팬데믹도 있지만 관중들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시대 흐름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다른 놀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있어요. 경기 시간이 긴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놀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안 하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더 악화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근데 야구뿐만 아니고 스포츠, 프로스포츠 전반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도 있고 아주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Q. KBO 팬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A. 내가 팬 퍼스트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KBO MZ 세대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제로 이번 일요일도 야구장 가서 또 팬들에게 어린이데이 때 이렇게 사인볼들 나눠주죠. 지금 저기에 사인볼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KBO 총재도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총재라고 해서 그냥 앉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만나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Q. 개개인들(선수, 코치, 프런트, 구단 관계자 등)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선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진짜 프로페셔널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걸만 프로여서는 안 된다. 프로페셔널리즘, 진짜 프로가 어떤 게 프로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기술, 기량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의식 구조, 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다 포함되지요. 김광현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KBO 리그 하다가 미국 가서 보니까 전혀 달라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얼마나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팬 서비스를 잘하느냐, 이런 것들을 느껴 왔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프로



왼쪽부터 허구연 NC 다이노스 코치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죠.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죠. 어떤 책무, 책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기부를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재능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Q. 지금까지 해오신 많은 일들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내가 40년 방송을 하면서 일본식 야구 용어를 버리고 야구 용어를 처음 정립한 것이 가장 보람에 남죠. 일본식 야구용어를 버리고 제대로 좀 잡는 데 노력한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에 와서 한 거는 인프라 쪽,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야구장들을 그래도 계속 해서 방송에 얘기하고, 지자체 설득 시켜 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전구장 외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프로 야구장이 됐잖아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야구장은 옛날 대전구장 그게 전국이 다 그랬어요. 잠실 구장도 다 그런 야구장이었습니다.

Q. 총재님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A. 제 좌우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라. 그리고 과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권력, 금력, 명예 세 가지 모두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걸 다 가지려 하거나 두 개 가지려 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인들도 그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Q. 평상시에 총재님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있다면?

A.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의사결정에 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인촌 김성수 선생이 하는 얘기가 '선공후사' 공적인 게 먼저고 사적인 거는 뒤에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직원들에게 얘기하는데 한국 야구 발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라.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일해라.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Q. 향후 야구계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A. 글썄요. 뭐 그냥 야구를 정말로 사랑했던 해설자. 그리고 총재. 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해요.



Q. 총재 끝나시고 나서 다시 해설위원으로 복귀하시는 건지?

A. 그건 장담하기 힘든데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Q. KBO팬들과 야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야구가 최근에 와서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지만 국제대회에서도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일탈 행위도 있고 이래서 팬분들이 실망을 하신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향상 시키고 일탈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그런 쪽에서 정말로 팬 퍼스트를 지향하는 그런 야구를 만들어야 하고 자꾸 제가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좀 나아지는 프로야구 의식 변화, 팬들에 대한 존중, 가치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홈페이지 한번 찾아봤더니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탈북민들 출신들 야구단 지원도 좀 고려하고 계시던데?

허구연 KBO 총재, 태영호 의원과 탈북민 유소년 야구 지원 방안 논의

A.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려고 해요. 운동장 제공하는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용품 같은 거 지원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제 개인적으로도 10년째 가까이 도와주고 있어요.

Q. 축구종합센터처럼 야구도 여러 가지 종합센터를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데 대충 어느정도 구상을 하고 계시죠?

A. 저는 중부권에 하나, 북부에 하나, 남부에 하나 더 욕심 같아서는 제주도까지 하나, 이렇게 3~4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야구계가 아마추어 쪽이 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열고 강습회하고 이렇게 어떤 행사를 좀 하고 싶어도 야구 쪽으로 그런 장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건이나 장소가 있어야 베이스볼 클리닉을 하든 코칭을 하든 뭘 하든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추어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 그래서 이제 그런 야구센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보서는 계획대로 야구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Q. 저는 이제 대학에서 오래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요즘 대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 아니면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체육 관련 학과를 일부러 늘려서 운동부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인원수가 많은 야구팀, 축구팀을 창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고대, 연대가 우승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한일 장신대, 영동대 이런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전문대에서 연락이 와서 팀 창단문제를 논의하는데 지금 그런 대학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라도 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향후 야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일까요?

A. 저는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거고, 그 다음에 야구 하는 애들이 어쨌든 학생 모집이 필요해서 하더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꼭 플레이어로서만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플레이어로서만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학 커리큘럼 이런 걸 잘 짜서, 프로 못 가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한다. 대부분은 프로 못 가죠. 대학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야구 센터 같은 걸

많이 만들고 교육도 하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또 이쪽 방면의 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학습 능력을 조금만 갖춰도 충분히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또 심신이 건강한 야구 선수들도 많으니까. 근데 지금 저도 쪽 보고 있는데 대학뿐만 아니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팀이 많이 생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거기서 좀 내실 있는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Q.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요즘 젊은이들이 KBO라든지 대한축구협회라든지 프로팀 프론트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도 이제 이런 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 저한테도 문의하는 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인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해서 제가 알아보니깐 아쉽게도 영어 잘하는 애들이 본인이 찾아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총재님이 미국 MLB 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을 KBO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제가 보기에 총재님만 오케이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A.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낙 MLB 그쪽에 인턴 지망생들이 많고 그리고 인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리하고 달라요. 나도 지금 총재된 이후에 인턴 많이 뽑았거든요. 제가 인턴 많이 뽑으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턴십을 받는 인턴 중 우수 인턴한테 직원 채용할 때 우선권을 줘라.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또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KBO 인턴들한 8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을 뽑



왼쪽부터 정승환 허구연 박정근 김동환
KCDC 취재진들과 함께

을 때 신입사원을 따로 뽑을 필요 뭐 있냐. 이 대학생들 중에 인턴 한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주라. 비록 다는 아닐지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근데 MLB를 내가 쪽 보지만은 거기 지금 사장들 단장 중에는요. 인턴십부터 하는 애들이에요. 대단한 애들이 인턴을 한다고. 아이비리그를 나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인턴십부터 해서 지금 사장이 되고 하는 거지 우리처럼 어디 다른 분야 갔다 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 콘셉트 자체가 우리나라 구단들이 생각하는 인턴하고 MLB 인턴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교수한테 미국 인턴이라던지 그런 부탁을 하면 본인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쪽 지역 팀의 구단에 가서 한국 커뮤니티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던 한인 사회하고 가교 역할을 하던 이런 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돌파구를 본인들이 직접 찾아야지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총재님 바쁘신데 이정도만 하시죠.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수고하셨습니다.